

HD현대삼호 유동성 기원, 2025년 대한민국명장 선정 영예

회사 역사상 첫 대한민국명장, 육상건조공법 선박 진수 시스템 선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기계정비 분야 통산 13번째



지난 9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HD현대삼호 유동성 기원이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장패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전제시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술지원 및 컨설팅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 기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숙련기술인에게 부여하는 명장 칭호를 받게 돼 뿌듯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면서 "명장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계정비 분야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와 회사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김희선 기자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의 유동성 기원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HD현대삼호는 지난 9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당사 설비보전부 외업정비팀장인 유동성 기원이 기계조립·관리정비 분야 기계정비 직종에서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장패를 수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선정되는 대한민국명장은 지난 1986년 첫 명칭이 이름을 올린 이래 직종마다 매년 최대 1명만 선정되며, 유 기원은 기계정비 직종에서 통산 13번째로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조선업 기계정비 분야 외길 41년 경력의 베테랑 유 기원은 지난 1994년 HD현대삼호의 모태인 한라중공업에 경력

으로 입사해 영업조선소 건설부터 참여하며 30년이 넘도록 회사와 고락을 같이 한 역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정적인 기계설비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공정 단축을 이끌어내 회전율을 크게 향상했으며, 특히 LNG운반선 등 육상건조공법으로 생산하는 선박을 진수하는 핵심 기계설비의 시스템을 체계화, 안착 시킴으로써 매출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선박 육상건조용 기계장비 원천기술 관련 특허 8건, 기계정비 관련 서적 5권을 집필하는 등 학술 분야에서의 활동도 왕성하다. ▲2014년 국가품질명장 ▲2019년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 ▲2023년 전라남도명장에 선정되는 등 이미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숙련기술인으로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 후진 양성 및 상생 발전에도 적극적이다. 특성고교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멘토링, 직업전도 지도,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광산CC로 현장 점검 나서

광산CC 운영 현황 파악 및 관계자 의견청취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지난 9일 광산구 연산동 소재 광산CC를 찾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부터 광산구 지역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산CC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시설 현황과 재정 운영 상황을 청취한 후 클럽하우스·코스 관리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직영 체제 전환 이후 운영상의 변화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이용객 편의 증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현석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광산CC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 환원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잘만든 정책, 워킹맘 삶이질 높인다... '10시출근제' 기획 주역은? 임선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장 '일·육아병행' 퇴사 고민 부모 고충해소... 전국화 꾀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가진 고민인데요. 이들의 고충을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광주시 최초로 시작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국가 사업으로 확장하게 한 숨은 주역은 누구일까. 임선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장은 10일 "공무원이자 엄마로서 일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일과 양육'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사업 기획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문화 기획자인 그가 일·가정 정책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된 건 오롯이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에서 시작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풀등 하원하거나 홀로 집에 남아있는 것을 보며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가 부모의 삶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기획자로 전향한 이유다. 광주시에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임 팀장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와 일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퇴사하는 사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임 팀장은 "흔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한다"며 "유치원에서는 종일 돌봄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는 입학 이후 학교 시간이 비교적 빨라 오히려 부모 손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력이 이탈시 업무 공백이 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 부모가 회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래서 착안한 게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육아 사업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줬다.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1시간으로 육아 시간을 정했다. 신청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우려국절도 있었다. 신청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설득하는 '발로 뛰는 서비스'를 했다.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사후 점검도 잊지 않았다. 일주일에 1차례 사업장 출석부



광주시양성평등기념행사에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설명하는 임선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장.

를 확인하며 진행 추이를 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2022년 100건에서 출발한 사업은 부모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2023년 125건, 2024년 300건, 올해는 500건까지 확장했다. 사업은 크고 작은 결실을 이뤘다. 시행 첫 해에는 행정안전부 '저출생우수사례경진대회' 대통령상을 받았다.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북·전주·전북·수원 등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들이 늘었다. 지난해 중앙지방지방법원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저출생우수사례'로 언급했다. 광주시와 임 팀장은 '사업의 전국화'를 목표로 부단히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렸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에게

끊임없이 자료를 보내면서 사업 확대를 설득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사업 수용 의사를 밝혔고, 새 정부가 '주4.5일제'를 발표하면서 사업은 시행 3년 만에 전국화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늘렸다. 지원 기간도 광주시가 시행한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설정했다. 그의 애정 어린 고민은 광주시의 굵직한 육아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광주시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을 기획해 정책 전국화의 궤를 이뤘다. 임선부고용유지지원사업과 임산부맘편한패키지 개발에도 참여했다. /전광훈 기자



함평군, 재해복구 지원금 활용해 피해 주민 지원 나선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함평군에 지원금 3,700만원 전달

전남 함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지원받으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회복에 힘을 보태게 됐다. 함평군은 1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9일 함평군에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3,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함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원된 것이다. 선포일 기준 전년도(2024년) 함평군이 남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약 30%가 산정되어 전달됐다. 군은 이번 재정지원금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지원금을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속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